

제11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2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3회)

제11편
 소사신앙촌시대 <제2부>
 一. 소사라고 하는 지역
 1) 무너진 하늘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예비해 놓은 곳
 2) 천봉지락소사탑(天崩地坼素砂立)의 본고장
 3) '환돌'이요 '계룡백석'이다
 4) 무릉도원종도처(武陵桃源種桃處)
 5) 시종간야소사지(始終艱野素砂地)

B) 시편 28:16 벨전 2:6
 “불지어다 내가 집모퉁이의 요긴한 돌을 시운에 두노니 택한 보배로운 돌이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말한 집모퉁이의 요긴한 돌은 구세주를 지칭하는 것이다. 마귀를 모신 사람들은 마귀를 멸하고 구세주를 마음속에 모셔야 하나님의 집인 성전 천국을 건설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집을 짓는 데 없어서는 아니될 요긴한 돌이 구세주라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하였다(사34:16). 승리자 구세주에게 환돌을 주신다고 했다(묵2:17). 구세주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였다(벨전2:4). 구세주를 따르는 우리도 산 돌이 된다고 했다(벨전2:5).

그런데 구세진인 조희성님은 당신만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를 따르는 우리도 구세주가 된다고 말씀하신다. 위의 말씀도 역시 구세주를 따르는 사람들도 구세주와 같이 산 돌이 되어 구세주가 된다고 한 말씀이다. 더욱이 실감나는 말씀이 있다. 다음을 보자!

C) 다니엘 2:34-35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뜬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쳐서 가루를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친 돌은 분명 하나였는데 우상을 친 다음에 보니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본 내용은 돌은 구세주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 적은 말씀을 보면 무수한 구세

주(돌)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께 나아간 즉 산돌이 되어라”고 한 말씀이 실감나게 마음에 들어온다. 구세주를 마음에 모셔야 됴를 말한 것이다.

D) 시편 118:22, 마 21:42
 “장인의 버린 돌이 집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나니”

이 돌도 역시 구세주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다. 석공들이 쓸모가 없는 돌이라고 내버린 돌이 집을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돌이 된다는 것이다. 구세주를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다가 그분이 구세주임을 알고 당황해 하면서 그분을 마음에 모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나라를 이룬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건설될 마음의 천국도 세상에 세워질 지상천국도 이 돌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게 나아간 즉 산돌이 되어 세움을 입어 신령한 집이 된다(벨전2:4)”고 한 것이다.

E) 시편 8:14, 벨전 2:8-9
 “주는 부딪치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다. 대개 저희가 도를 순종치 아니하므로 걸려 넘어지나니”

F) 출애굽기 9:16, 롬9:33
 “불지어다 내가 부딪치는 돌과 미끄러지는 반석을 시운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받지 아니하리라”

위의 “F)G)”의 두 구절은 구세주의 진리 말씀에 다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큰돌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 한복판에 놓여있다면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구세주의 진리의 법(法)에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예수는 가



부천은 복숭아의 고장이라 부천자연생태공원 내에 무릉도원(사진이 있다)

짜 구세주다! 또 인류를 지배해 온 음양의 성품이 마귀성품이니 다 버려야 한다고 하니가 다 그 진리의 돌에 부딪쳐 걸려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고 만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그 돌을 미워하게 되고 그 돌을 없애버리려 할 것이다. 그래서 구세주는 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G) 마태 21: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이 돌을 없애버리려 한다면, 그 돌에 부딪혀 오기만 한다면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된다고 하였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구세주의 천지공사를 아무도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구세주를 돌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표현하였다. 구세주에게 환돌을 준다고 했는데(묵2:17) ‘새 소사’가 환돌이 되며 이 환돌은 왕중왕이 되는 구세주가 된다. 환돌의 주인공 구세주는 모든 마귀를 박멸시키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돌인 새 소사에서 무너진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환돌 되시는 구세주가 요긴한 주춧돌이 되셔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승리하신 하나님인 구세주께서 각사람의 마음을 점령하여 마귀를 멸해버리고 각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 즉 천국을 건설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될 요긴한 주춧돌이 곧 환돌이요 계룡백석이요 구세주이다. 구세주는 소사땅에서 무너진 하늘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이니 소사는 천지개벽의 본고장이 되는 것이다.

4)素砂(소사)는 武陵桃源種桃處(무릉도원종도처)다

무릉도원이란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별천지 선경을 말하는 데 신선들이 살았다는 곳이다.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理想鄉)을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하지만 동양에서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고 한다. 사실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런 이상향은 이 세상에 없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상향을 꿈꾸어 온 것일까? 그것은 과거 언젠가 우리의 조상이 그와 같은 이상향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사에서 무너진 하늘나라를 세우기

素沙立)의 본고장이 된다고 설명을 한 바 있다. 그 말의 뜻은 무너진 하늘나라 에텐동산이 소사에서 다시 세워진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래서 소사는 무너진 하늘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본고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이상향인 무릉도원은 죽음의 세계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향은 하늘나라요 천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릉도원도 인간 죄악세상인 죽음의 세계에는 없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지게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유토피아요 선경인 무릉도원이 되는 것이다.

그 무릉도원이 소사땅에서 이루어지는 본고장이라고 선각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소사땅은 복숭아밭이 많았던 곳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장을 ‘복사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복숭아밭이 많은 이곳 소사를 무릉도원종도처(武陵桃源種桃處)라고 하였다. 그 뜻은 무릉도원이 되도록 복숭아씨를 뿌려놓은 곳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각자들이 이곳 소사를 어떤 식으로 무릉도원임을 밝히고 있는지를 찾아 알아보기로 하겠다.

가. 계룡론(鷄嶺論)

平沙福地三里(평사복지삼리)로서 非山非水傳(비산비수전)했으며 人民避兵之方(인민피병지방)이라. 三災不入仙境故(삼재불입선경고)로... 武陵桃源種桃處(무릉도원종도처)가 淨土福地(정토복지)아니던가.

“부평과 소사는 복된 땅인데 삼신의 하나님인 전(田)자를 상징하는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곳이다. 이곳은 산도 아니요 물도 아니라고 전해 왔으며 백성들이 병란을 피할 곳이다. 삼재가 들어오지 못하는 선경인데 이곳에 복숭아

씨를 뿌려 인류가 갈망하는 선경인 무릉도원으로 이룩될 본고장으로서 예비된 곳이다. 이곳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정토의 복된 땅이 아니던가(부평과 소사가 무릉도원으로 예비된 곳이라고 하였다.)”

나. 塞(새) 65장

聖山聖地仁富之出(성산성지인부지출) 有知者生無知者死(유지자생무지자사) 別有天地非人間(별유천지비인간) 武陵仙境種桃地(무릉선경종도지) 人壽如桂永不衰(인수여계영불쇠)

“성산성지는 인천과 부천 사이에 있는 곳인데 이를 아는 자는 살고 모르는 자는 죽는다. 이곳은 별천지인데 인간 세상이 아닌 신선들이 사는 무릉선경으로 되도록 복숭아씨를 미리 뿌려놓은 땅이다(영적 의미). 이곳에서는 사람의 수명은 마치 계수나무와 같이 영원히 늙는 법이 없다(인천과 부천에 무릉도원으로 예비된 곳이다.)”

다. 은비가(隱秘歌)

風驅惡疾雲中去(풍구악질운중거) 雨洗冤魂海外消(우세원혼해외소) 別有天地非人間(별유천지비인간) 武陵桃源弓弓地(武陵桃源궁궁지) 聖住蘇萊老姑地(성주소래노고지) 人生造物三神主(인생조물삼신주) 東海三神亦此山(동해삼신역차산)

“모든 악한 질병을 바람으로 몰아 구름 속으로 물리치고 억울한 혼은 비에 씻겨 바다 밖으로 사라진 이곳은 별천지로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닌 무릉도원 궁궁 심승지다. 성인이 거하는 곳으로 소래산과 노고산에 위치한 곳인데 인생의 조물주가 되는 삼신일체된 주님과 동해의 삼신도 이 산을 상징하는 주인공의 대명사이다(소래산과 노고산이 있는 곳이 무릉도원이다).” *

未運論(二) 말운론

小頭無足飛火落地 소두무족비화락지
 隱居密室依天兵 은거밀실의천병
 欣天勢魔 自躊躇 혼천세마 자주적
 欲死欲走永無得 욕사욕주영무득
 不知三聖無福歎 부지삼성무복탄
 此運西之心 차운서지심
 彼賊之勢 哀悽然 피적지세 애저연
 山岩隱之身掩 산암은지신염
 衆日光眼不閉日 중일광안부폐목
 四九之運百祖一孫 사구지운백조일손

소두무족은 불 화(火)를 의미한다.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서 땅에 떨어질 때면 밀실에 은거하여 천병에 의지하니 하늘을 흐드는 마귀의 권세가 주저 주저하리라. 죽어라 달아나도 피난처를 얻을 수 없나니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복 없음을 한탄하리라.

이 운은 추풍낙엽과 같이 엄정하고 무서워 저를 도적(구세주하나님도 모르고 서학을 떠받드는 자들)들의 기세가 여지없이 꺾이게 되니 그 신세가 참으로 애처롭구나. 산과 바위틈에 몸을 숨기기에 급급한 무리들은 밝고 밝은 대명천지에 놀라서 두려운 나머지 눈을 크게 뜨게 되리라. 서양 기독교의 운세는 백 명의 조상 중 한 자손만 살게 되는 운이로다.

龍蛇變動雙年間 용사발동쌍년간
 無罪之定三數不忍出獄 무죄지정삼수 불인출옥

격암유록 新 해설 제14회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르더라도 진인 정도령은 소사에서 나오느니라

悲運一四數 비운일사수
 不足之投火滅之 부족지투화멸지
 後生之集合之運 후생지집합합지운
 滿數之飲鄭氏黎民 만수지음경씨려민
 多小不計受福之世 다소불계수복지세
 一六好世主三之運 일육호세 임삼지운
 或悲或喜 흑비흑희

용사가 발동하는 즉 진사의 2년간의 운이다. 정도령이 죄가 없지만 하늘이 정한 3수로 인하여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 나오면 비운이 닥치게 되며 14수가 부족하여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인류가 전멸하게 된다. 후생들이 모여 합쳐서 하나가 되면 부족한 수(數) 즉 14수를 채워 생명수를 마시게 되어 정도령을 따르는 하늘 백성들이 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복을 받는 세상이 되리라.

그 세상은 생명수를 마시는 좋은 세상이 된다. 기다리던 임삼의 운은 불완전 오리니 한편으로 슬프고 다른 한편으로 기쁠 것이니 생사가 갈라지리라.

仁富之間 夜泊千船 인부지간 야박천소
 和氣東風萬邦和 화기동풍만방화
 百祖十孫壬三運 백조십손임삼운

山崩海枯金石出 산붕해고금석출
 列邦蝴蝶見光來 열방호접견광래
 天下萬邦日射時 천하만방일사시
 天地反覆此時代 천지반복차시대
 天降在人此時代 천강재인차시대
 豈何不知三人日 기하부지삼인일
 東西合運枝葉道 동서합운지엽도
 此運得受女子人 차운득수여자인

인천 부평 부천지역에 밤에 천적의 배가 정박하며(은금보화를 싣고 정도령을 보러온 배) 정도령의 화기로운 불바람이 세계만방을 하나로 화합하게 하니 백 명의 조상 가운데 열 명의 자손이 살게 되는 임삼(임인)의 운이 되리라.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르더라도 진인 정도령은 소사에서 나오시니 세계만방에서 나비가 빛을 보고 날아오듯이 몰려오리라. 금석(金石)은 백석이 며 백석은 소사이다(白金=백소=소사). 진리의 태양이 천하만방에 다 비치어 천지가 뒤집어지는 즉 천지가 개벽하는 시대에는 천신이 하강하셔서 사람 속에 거하시게 되는 시대이니 어찌하여 삼인일(三人日=춘봄)을 알지 못하는가?

동서합운 즉 금운과 목운이 합일된 삼인일(춘봄)로 오신 6도 81궁 정도령의 진리로 유불선이 하나가 되니 마음속에서 지천태도를 이룬 사람 즉 하나님이 좌정한 사람이 이 운을 받을 수 있느니라.

一祖十孫人人活 일조십손인인활
 道道教教十勝 도도교교합십승
 列邦各國指導人 열방각국지도인
 三公大夫指指揮世 삼공대부지지휘세
 上中之下異運時 상중하이운시
 一道合而人人合 일도합이인인합
 德心生合無道滅 덕심생합무도멸

한 할아버지에 10명의 자손이 나오듯이 사람 사람들이 살게 되며 모든 도와 종교가 십승으로 통합되리라. 세계각국의 지도자와 고관대작을 가르치며 세상을 지휘하게 되리라. 상 중 하로 각기 다른 운이 오더라도 하나의 도로 통합하면 사람사람이 마음을 합치리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어진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영생하리니 이러한 도가 없으면 멸망하리라.

人生出死巧乙天 인생출사궁을천

天定人心還定歌 천정인심환정가
 魑魅發不奪人心 리매발불탈인심
 信天人獲罪於天 신천인회죄어천
 無所禱 空虛事人間 무소도 공허사무인간
 夜鬼發動不入勝 야귀발동불입승
 天生天殺道道理 천생천살도도리
 化於千萬理有海印 화여천만리유해인
 一人擇之化 일인택지화
 敏過自責 吸海印 민과자책 흡해인
 無不通知天意理 무불통지천의리
 奚如天遠反低 해여천원반저

들어가면 살고(영생) 나오면 죽는 궁을촌(=신천촌)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니 귀신과 도깨비가 날뛰어도 그들의 마음은 빼앗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데가 없으며 공허하고 무용지물과 같은 인간이 될 뿐이니 마음속에 야귀가 발동하여 십승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이 살리고 하늘이 죽이는 도의 이치는 천번만 화하는 조화의 권능을 가진 해인에서 나오느니라.

한 번 정도령(6도 81궁)을 택하여 무궁조화의 권능을 나타내시니 허물이 있으면 재빨리 자신의 탓이라 여겨야 해인을 받게 되느니라. 무불통지 즉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 먼 하늘에서 하나님에 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까닭이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